

목회를 하다보면(9)

장 의 성(목사, 익산 제자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피아(彼我)를 구분 못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목회자에게 여당 역할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야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 역할을 하던 사람은 여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불가근(不可近) 불가원(不可遠)의 원칙은 목회자 세계의 불문율이다. 흔히 하는 말이 교인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명언이다. 교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사도 바울 역시 말년에는 몹시 외로웠던 모양이다. 그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불과 디모데와 누가와 마가 몇몇이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딤후 4:10-11). 하기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은 여인네 몇 명뿐이었다. 그것도 멀리서 바라다 볼 뿐이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막 15:40). 그러니 종이 주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법.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는 사제지간 보다 더 깊은 부모자식간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이요(“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전 4:15) 이 관계를 함부로 적용했다가 아버지뻘 되는 장로님들의 노여움을 사는 젊은 목사들을 가끔 보았다. 사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만민평등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 23:8-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만 보면 천주교는 잘못 가고 있는 셈이다. 신부(神父)라는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교직제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웨이커나 모라비안 형제단 또는 영국의 다아비나 조지 필러 계통의 프리머스 형제단이 오히려 옳을 성 싶다. 그런 점에서 감독(대주교)-장로(주교)-집사(부제)의 서열이 엄격히 수직제도화 되어 있는 천주교 직제 보다는 성직자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 웨이커나 형제교회 같은 소종파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는 만인제사장설에 동의하면서 실제로서는 목사=제사장이라는 등식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평신도의 의식수준이다. 불교의 오래된 전통에서 승려에게 제공했던 공양을 목회자에게 그대로 수평 이동하여 대접하는 것이 한국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목사 가운데는 구약의 전례에 따라 십일조는 제사장인 목사의 몫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구약에서 십일조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의 몫인 것에 근거한다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십일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몫도 들어 있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민 18:21),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 26:12).

그러면 목회자와 교인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 우선 목사라는 말의 어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자와 양이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목회는 곧 목양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목회자의 일차적 책무이다. 문제는 양무리 속에 있는 염소떼들이다. 양과 염소는 세상 끝 날까지 함께 섞여 있기 마련인데 염소보다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목장 목자는 툴루랄라 행복한 목회를 할 것이고, 염소가 양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목장 목자는 다소 고전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장에는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이리도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를 경고한 적이 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행 20:28-29). 여기 나오는 사나운 이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한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다는 점에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 7:15).

그런데 이 노략질 하는 이리를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 선한 목자와 샅군 목자가 구분되는데 샅군 목자는 도망가고 참 목자는 목숨조차 버린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샅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요 10:11-12).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가 아니면 제 몸만 생각하는 샅군 목자인가? 이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곰곰이 되풀이하여 생각해야 할 공안(公案)이다.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선민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늘의 유대인들은 지난 2천년동안 천덕꾸러기 유랑민 신세를 면치 못한 불우한 역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기껏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2천년 동안이나 유럽의 유랑민으로 천대받도록 선택되었냐하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선택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엘리트 민족이 되는 의미의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결코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신명기 7장에서 밝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

야훼 하나님의 선택은 가끔 인간의 선택과는 정반대여서 우수한 것보다는 열등한 것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가인보다는 둘째 아벨을 사랑하신 것이나 용맹한 이스마엘보다 유약한 이삭을, 강인한 에서보다는 여성적인 야곱을 택하신 것이 좋은 예이다. 강한 자보다 약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율법에서 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챙기라는 그의 관심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약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이러한 약자 선호 경향은 교회의 선택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에 속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교회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

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고전 1:27-28).

이렇듯 야훼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중동의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에게는 자신을 좀처럼 나타내지 않으면서 훨씬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성서의 하나님 야훼를 말할 때는 히브리를 연관시키지 않을 수 없다. 히브리인이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유랑민, 부랑민을 통칭하는 사회계층적 용어로 상류계층과는 거리가 먼 하류계층에 가깝다. 다시 말해 야훼 하나님은 애굽의 하층 민중인 히브리 노예들이 섬겼던 특별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특별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과 어떤 관계인가? 전능자 엘로힘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에게나 공평하게 계시되고 경외함을 받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이 천지의 주재이신 우주적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행 17:24-27).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상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상대하신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인류 공통의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적 하나님을 모든 인류는 종교를 떠나 공유하며 공감하고 경외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고넬료이다. 그는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공경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통

해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깨달았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나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롬 3:29).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실로 소크라테스의 하나님이기도 하며 이삭의 하나님은 실로 키케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진정 세네카의 하나님이기도 하다(순교자 저스틴의 유명한 말). 만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성, 우주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뿐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공자와 맹자와 노자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그들은 하나 같이 하늘 ‘천’(天)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성인들이다.

물론 공자와 노자를 따른다는 유교와 도교가 훗날 엄청나게 미신화되고 주술화되고 기복주의, 우상숭배에 빠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신과 주술에 빠진 유교와 도교의 책임을 모두 공자와 노자에게 돌릴 수 없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듯이 미신적인 유교와 도교는 공자, 노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천지의 주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까지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약자의 설움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민감하시기 때문이다. 강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약육강식이라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부당하게 고통 받고 억울하게 고난 받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훨씬 인간적이고 인격적이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히브리인인 사회적 약자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선택하여 자신을 보여주신다. 農